

SEOUL ECONOMIC MONITORING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 소비경기지수

2021. Nov

11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인포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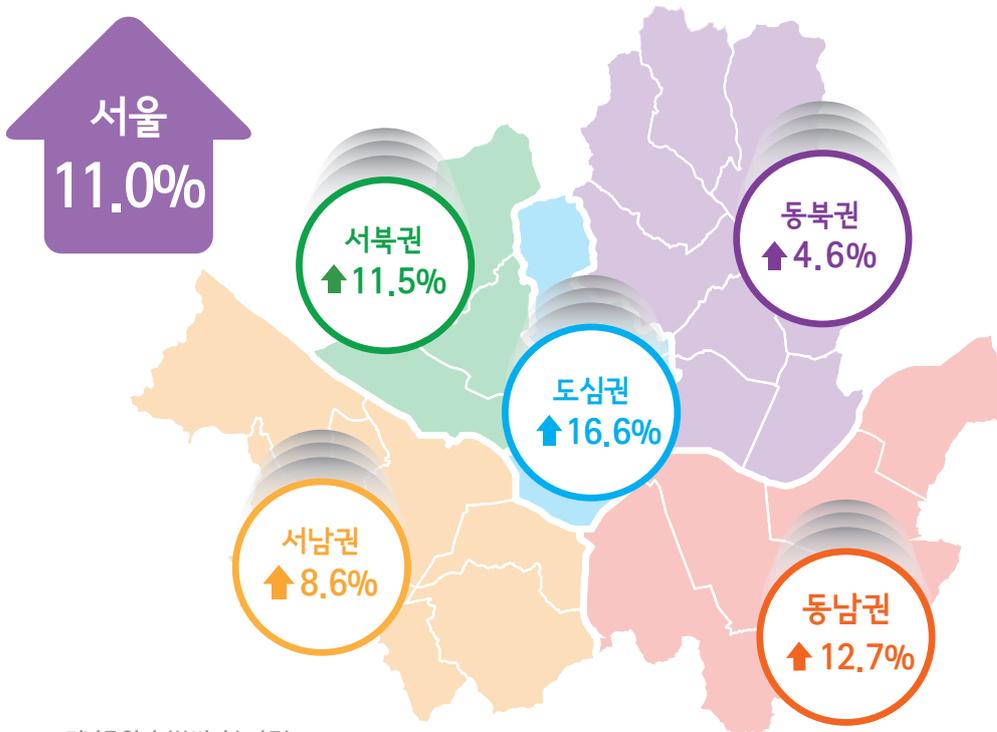


서울 소비경기지수
2021. 11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21년 11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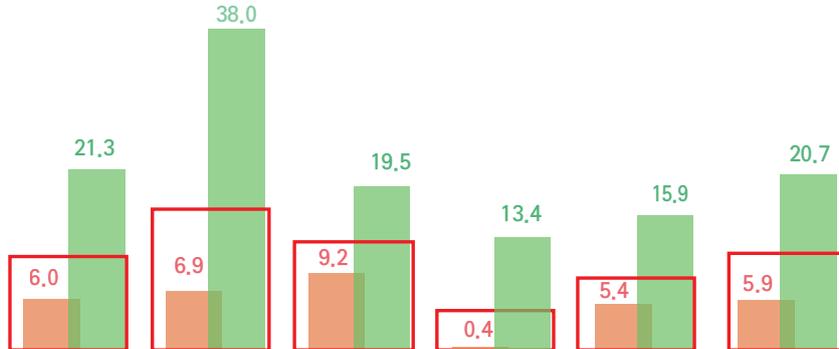
전년동월대비 **11.0%** 상승
(불변지수)

서울 전 권역에서 숙박·음식점업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울 소비경기는 3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전년동월비 (불변지수기준)

서울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11.0%	16.6%	12.7%	4.6%	8.6%	11.5%



- 서울소비경기지수 전년동월비(%)
- 소매업지수 전년동월비(%)
- 숙박·음식점업지수 전년동월비(%)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카드매출 빅데이터의 가공·조정·변환을 통해 산출된 지수로 신한카드 원본 데이터의 트렌드와는 차이가 있음

요약

<p>서울 11.0% (11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11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113.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상승하면서 (지난 9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서울의 소비경기지수 오름폭도 (전월보다) 두 배가량 큰 폭으로 확대.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 오름폭은 큰 폭으로 확대된 반면 소매업 경기지수 오름폭은 전월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업 세부 업종 대부분이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름폭은 (전월보다) 다소 둔화되었으며, 연료와 가전제품·정보통신 등 일부 업종의 부진은 지속 -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는 등 11월 서울의 숙박·음식점업은 세부 업종이 모두 상승
<p>권역종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전권역에서 숙박·음식점업이 대폭 상승하면서 권역별 소비경기지수도 (전월보다) 확대. 반면 소매업 오름폭은 (전월보다) 다소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권 :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세부 업종 대부분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하면서 11월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서울 권역 중 가장 양호. 도심권 소비경기는 (지난 2월부터) 10개월 연속 서울 권역 중 가장 양호 -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 전월 하락했던 숙박·음식점업이 상승으로 반등. 11월 숙박·음식점업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권역별 소비경기지수 상승폭도 (전월보다) 확대. 소매업도 전월에 이어 상승세는 이어졌으나 오름폭은 다소 둔화
<p>도심권 16.6% (125.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동월대비) 소매업이 6.9% 상승에다 숙박·음식점업도 38.0% 대폭 상승하면서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16.6% 상승.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10개월 연속 서울 권역 중 가장 양호 •도심권은 서울 소매업이 주춤한 11월에도 문화·오락·여가, 의복·섬유·신발, 음식료품 등 소매업 일부 세부 업종 오름폭이 (전월보다) 확대되었으나, 소매업 전체 경기지수 오름폭은 (전월보다) 다소 둔화 •숙박, 음식점, 주점·커피전문점 등 세부 업종이 모두 상승하면서 3개월 연속 도심권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는 상승세를 유지
<p>동남권 12.7% (116.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9.2% 상승에다 숙박·음식점업도 19.5% 상승하면서 동남권 소비경기지수도 12.7% 상승 •동남권 소매업은 기타상품, 의복·섬유·신발, 무점포소매, 음식료품, 종합소매 등 일부 세부 업종의 선전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6개월 연속 서울 권역 중 가장 양호 •동남권은 숙박의 지속적인 상승세와 더불어 전월 하락했던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세부 업종이 상승으로 반등하면서,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도 (전월보다) 큰 폭으로 상승
<p>동북권 4.6% (10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동월대비) 소매업은 전년동월수준(0.4%)이었으나 숙박·음식점업이 13.4% 상승하면서 동북권 소비경기지수는 4.6% 상승. 그러나 11월 동북권은 상대적으로 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모두 서울 권역 중 가장 가장 부진 •동북권 소매업은 세부 업종 대부분이 상승을 나타냈으나 기타가정용품, 가전제품·정보통신 등 일부 업종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등 전반적으로는 주춤한 모습 •전월 부진했던 음식점, 주점·커피전문점이 상승으로 반등. 숙박도 상승세를 이어 가면서 숙박·음식점업 세부 업종이 모두 상승. 이에 전월 하락했던 동북권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는 11월 들어 상승으로 전환
<p>서남권 8.6% (11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5.4% 상승에다 숙박·음식점업도 15.9% 상승하면서 서남권 소비경기지수는 8.6% 상승 •서남권은 무점포소매, 기타상품, 음식료품, 종합소매 등 소매업 일부 세부 업종의 선전으로 6개월 연속 상승세. 다만,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 오름폭은 (전월보다) 다소 둔화 •서남권도 전월 부진했던 주점·커피전문점과 음식점이 상승으로 반등. 전월 하락했던 서남권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도 상승으로 반등
<p>서북권 11.5% (10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5.9% 상승에다 숙박·음식점업도 20.7% 대폭 상승하면서 서북권 소비경기지수도 11.5% 상승 •서북권은 소매업 세부 업종 대부분이 상승. 특히 전월 부진했던 기타가정용품과 문화·오락·여가 등이 상승으로 반등했지만, 서북권 소매업 경기지수 오름폭은 (전월보다) 다소 둔화 •서북권도 전월 부진했던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이 상승으로 반등. 숙박의 상승폭이 더욱 커지면서 전월 하락했던 서북권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도 상승으로 반등

서울

• 11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1.0% 상승

- 전년동월대비 +11.0% = 소매업의 기여도 +4.0%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7.0%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 관련 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

- 11월 서울 소비경기지수의 상승은 음식점, 숙박 등 숙박·음식점업의 활성화에 기인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6.0%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21.3% 상승

- 11월 서울 소매업은 대부분 업종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소매업 경기지수도 6개월 연속 상승. (단, 연료와 가전제품·정보통신의 부진은 지속). 그러나 종합소매(10월, 6.3% ⇨ 11월, 0.9%), 음식료품(10월, 11.2% ⇨ 11월, 6.0%), 무점포소매(10월, 14.3% ⇨ 11월, 12.1%) 등 소매업 세부 업종 대부분의 오름폭이 줄어들면서 소매업 경기지수 오름폭은 (전월보다) 다소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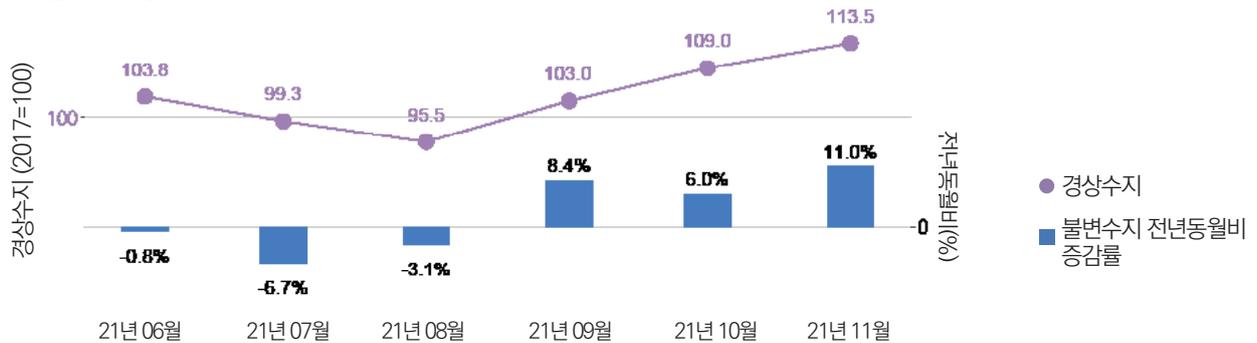
· 11월 서울 소매업은 기타상품, 무점포소매, 음식료품, 기타가정용품, 의복·섬유·신발, 음식료품, 기타가정용품, 문화·오락·여가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연료, 가전제품·정보통신 등의 순으로 소비감소

- 숙박·음식점업은 세부 업종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울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세. 특히 전월 하락했던 주점·커피전문점(10월, -6.8% ⇨ 11월, 17.8%)과 음식점(10월, -2.5% ⇨ 11월, 16.0%) 소비경기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반등

· 11월 서울 숙박·음식점업은 숙박,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의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소비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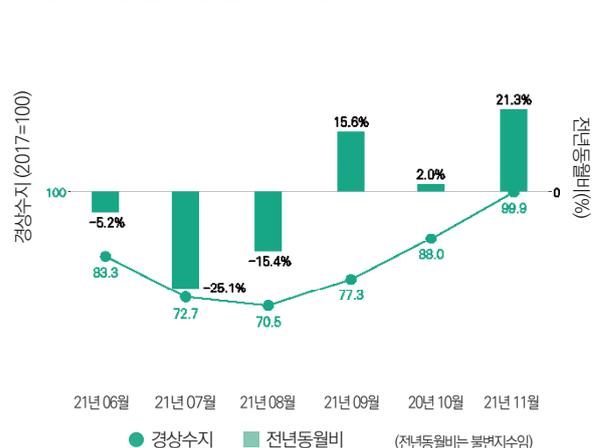
| 서울 소비경기지수



| 서울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 서울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도심권

•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6.6% 상승. 도심권 소비경기는 10개월 연속 서울 권역 중 가장 양호

- 전년동월대비 +16.6% = 소매업의 기여도 +4.7%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11.9%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 관련 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6.9%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38.0% 상승

- 도심권은 2021년 내내 소매업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 도심권 소매업은 서울 소매업 경기지수가 주춤한 11월에도 문화·오락·여가(10월, 4.2% ⇨ 11월, 18.8%), 의복·섬유·신발(10월, 1.2% ⇨ 11월, 11.0%), 음식료품(10월, 14.1% ⇨ 11월, 20.6%) 등 일부 세부 업종의 오름폭이 (전월보다) 확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업 전체 경기지수 오름폭은 (전월보다) 다소 둔화(10월, 7.4% ⇨ 11월,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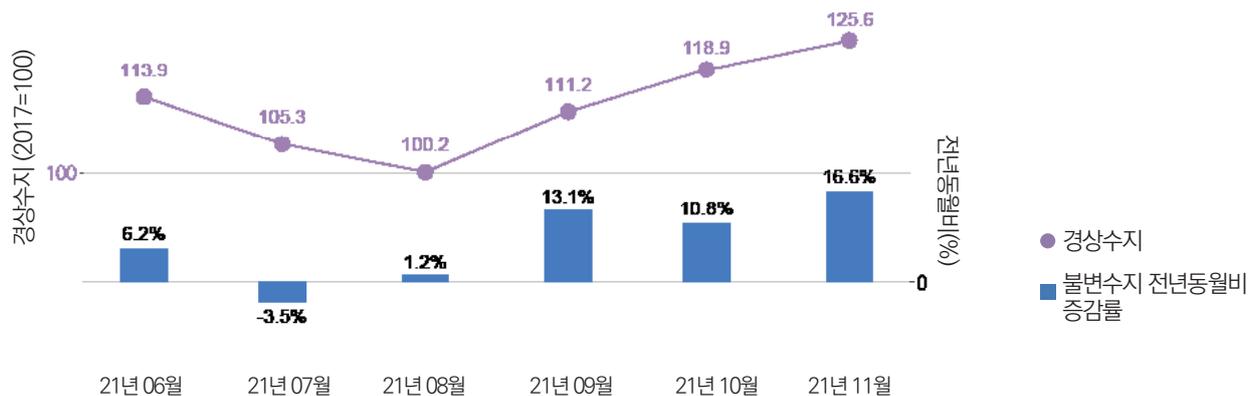
· 11월 도심권 소매업은 기타가정용품, 음식료품, 문화·오락·여가, 의복·섬유·신발, 기타상품, 무점포소매, 종합소매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연료, 가전제품·정보통신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

- 도심권 숙박·음식점업은 세부 업종 모두 3개월 연속 상승세. 음식점(10월, 3.3% ⇨ 11월, 24.0%), 숙박(10월, 69.3% ⇨ 11월, 88.9%), 주점·커피전문점(10월, 7.7% ⇨ 11월, 16.6%) 등 세부 업종의 오름폭도 (전월보다) 확대

· 11월 도심권 숙박·음식점업은 숙박,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의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소비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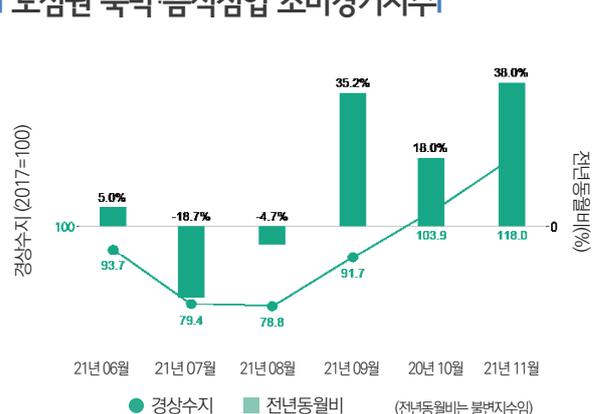
도심권 소비경기지수



도심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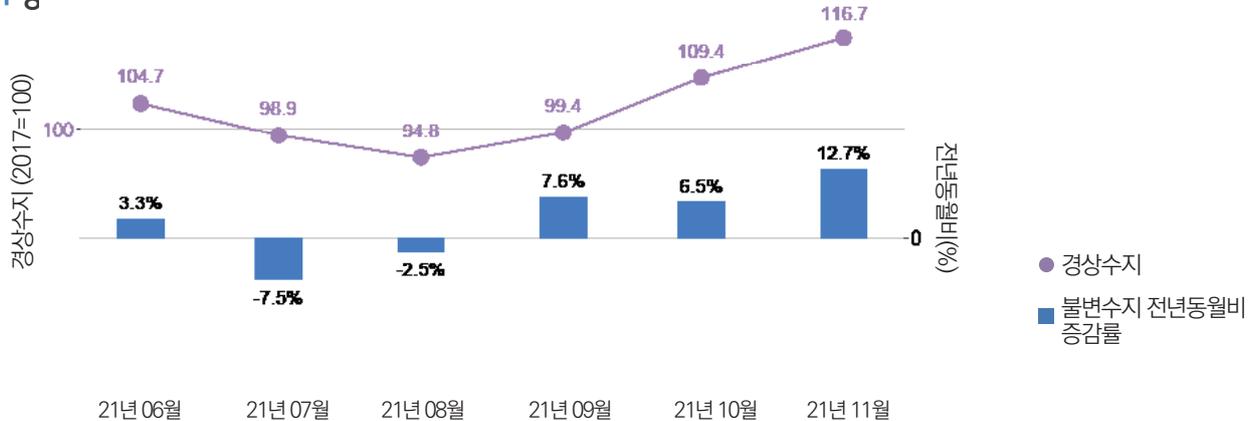
도심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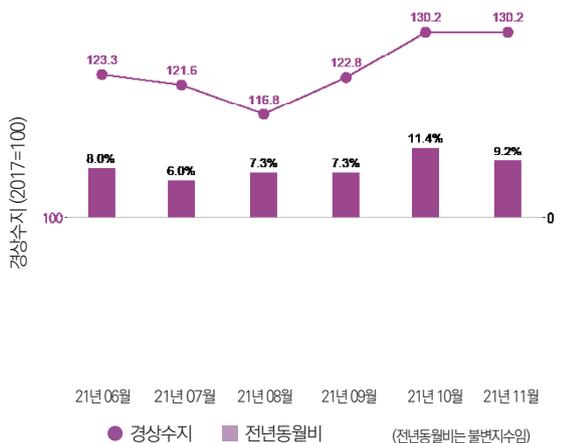
동남권

- 동남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2.7% 상승. 소매업은 6개월 연속 서울 권역 중 가장 양호**
 - 전년동월대비 +12.7% = 소매업의 기여도 +6.0%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6.7%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지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 관련 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9.2%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19.5% 상승**
 - 동남권 소매업은 기타상품(20.8%), 의복·섬유·신발(15.4%), 무점포소매(13.5%), 음식료품(6.5%), 종합소매(5.2%) 등 일부 세부 업종의 선전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소매업 경기지수는 6개월 연속 서울 권역 중 가장 양호. 단 11월 소매업 경기지수 오름폭은 (전월보다) 다소 둔화(10월, 11.4% ⇨ 11월, 9.2%)
 - 11월 동남권 소매업은 기타상품, 의복·섬유·신발, 무점포소매, 음식료품, 종합소매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연료, 가전제품·정보통신, 기타가정용품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
 - 숙박(10월 27.8%, 11월 38.9%)의 지속적인 상승세와 더불어 음식점(10월, -3.9% ⇨ 11월, 15.8%), 주점·커피전문점(10월, -34.9% ⇨ 11월, 11.2%)의 반등에 힘입어 11월 동남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반등(10월, -2.6% ⇨ 11월, 19.5%)
 - 11월 동남권 숙박·음식점업은 숙박,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의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소비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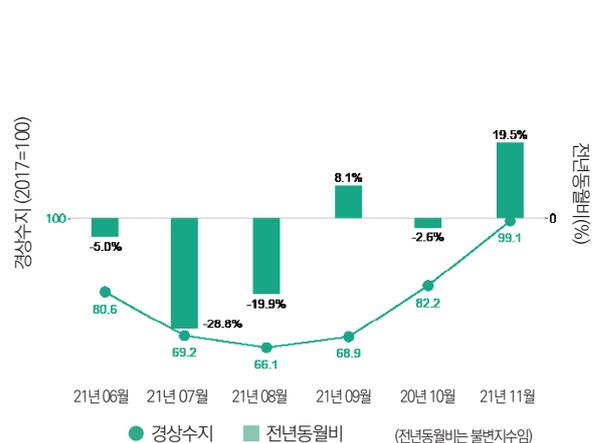
동남권 소비경기지수



동남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동남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동북권

• 동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6% 상승. 단, 상대적인 소매업 부진으로 인해 동북권 소비경기는 3개월 연속 서울 권역 중 가장 부진

- 전년동월대비 +4.6% = 소매업의 기여도 +0.3%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4.3%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지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 관련 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0.4%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13.4%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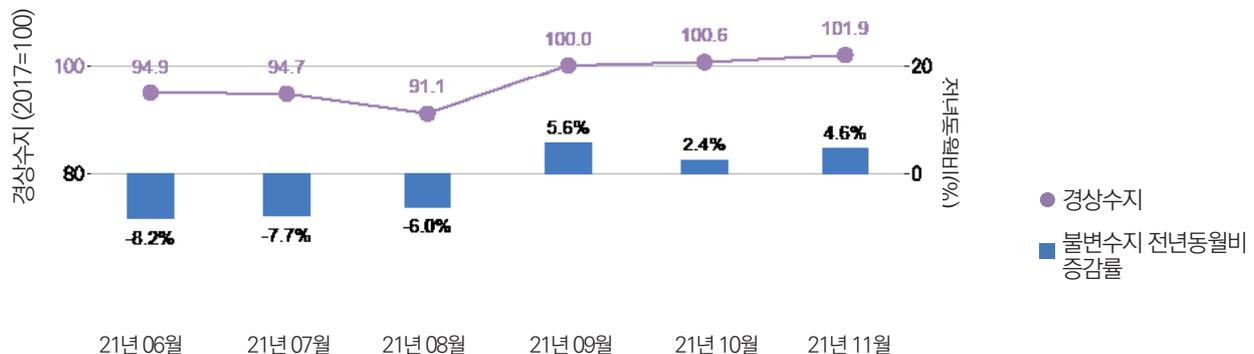
- 동북권은 무점포소매(10.2%), 기타상품(8.1%), 음식료품(6.5%), 문화·오락·여가(5.5%), 의복·섬유·신발(4.2%) 등의 대부분 소매업 세부 업종이 상승했으나 소매업 경기지수 오름폭은 (전월보다) 둔화(10월, 4.5% ⇨ 11월, 0.4%). 또한 전월 상승했던 기타가정용품(10월, 3.3% ⇨ 11월, -5.6%)과 가전제품·정보통신(10월, 0.4% ⇨ 11월, -0.3%) 등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등 전반적으로 주춤한 모습

- 11월 동북권 소매업은 무점포소매, 기타상품, 음식료품, 문화·오락·여가, 의복·섬유·신발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연료, 종합소매, 기타가정용품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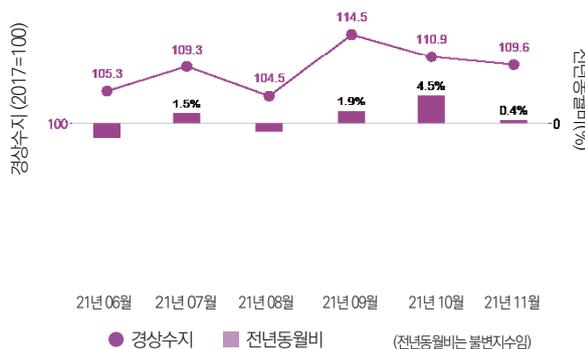
- 동북권은 전월 부진했던 음식점이 상승으로 반등(10월, -3.4% ⇨ 11월, 10.7%)하고, 주점·커피전문점이 큰 폭으로 상승(10월, 2.1% ⇨ 11월, 30.1%) 등 11월 세부 업종이 모두 상승하면서 도심권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도 반등(10월, -1.7% ⇨ 11월, 13.4%). 단, 숙박업 오름폭은 다소 둔화(10월, 8.2% ⇨ 11월, 2.0%)

- 11월 동북권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 숙박 등의 세부 업종 순으로 소비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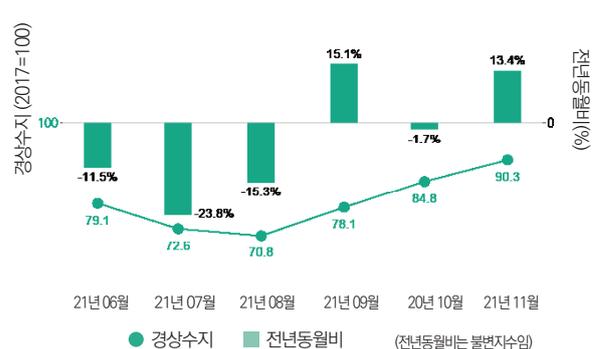
동북권 소비경기지수



동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동북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서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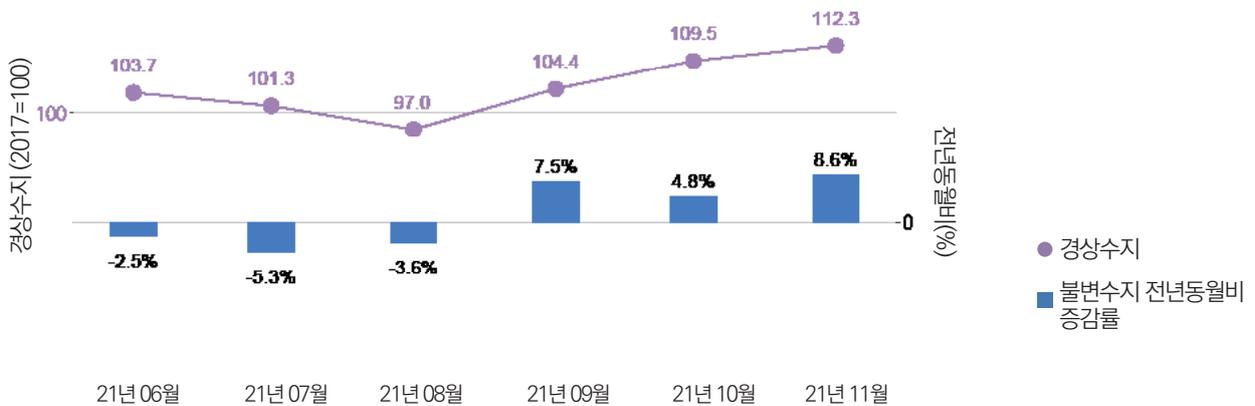
• 서남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8.6% 상승

- 전년동월대비 +8.6% = 소매업의 기여도 +3.7%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4.8%p
(각 업종별 기여도=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 관련 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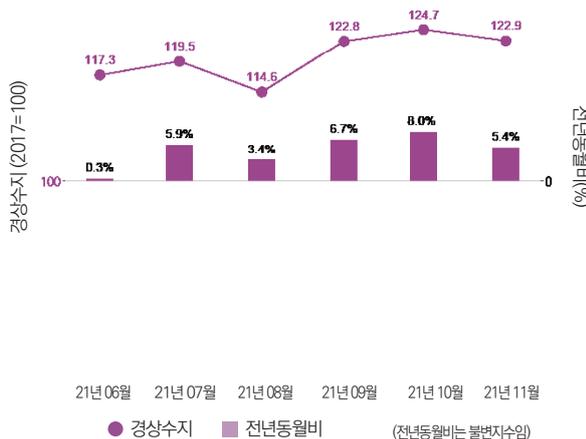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5.4%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15.9% 상승

- 서남권은 무점포소매(15.8%), 기타상품(9.2%), 음식료품(2.1%), 종합소매(1.7%) 등 일부 세부 업종의 선전으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동남권 소매업 경기지수는 오름폭도 (전월보다) 확대(10월, 8.0% ⇨ 11월, 15.9%)
- 연료(-31.0%), 가전제품·정보통신(-3.0%), 의복·섬유·신발(-0.7%), 문화·오락·여가(-0.7%) 등 일부 업종의 부진은 지속
 - 11월 서남권 소매업은 무점포소매, 기타상품, 음식료품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연료, 기타가정용품, 가전제품·정보통신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
- 서남권은 주점·커피전문점(10월, -11.1% ⇨ 11월, 18.9%), 음식점(10월, -2.4% ⇨ 11월, 14.7%) 등이 전월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등하면서 하락했던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도 11월 다시 상승으로 반등(10월, -2.0% ⇨ 11월, 15.9%)
 - 11월 서남권 숙박·음식점업은 숙박,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의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소비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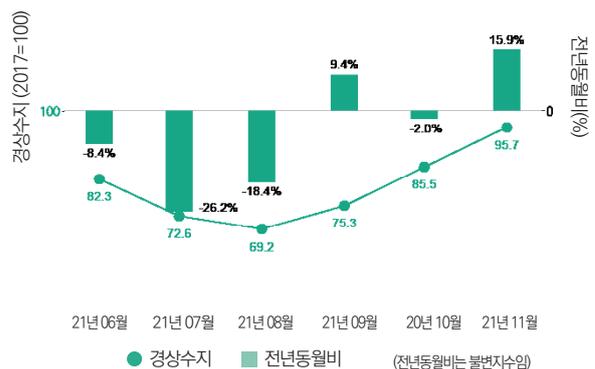
| 서남권 소비경기지수



| 서남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 서남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서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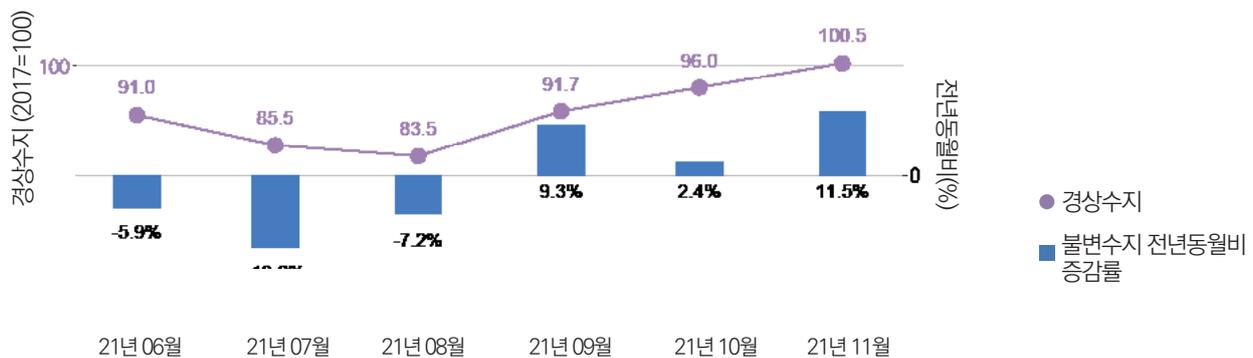
• 서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1.5% 상승

- 전년동월대비 +11.5% = 소매업의 기여도 +3.7%p + 숙박·음식점업의 기여도 +7.8%p
(각 업종별 기여도 = 각 업종별 기여율 × 소비경기지수 증감률, 소비경기지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
※ 관련 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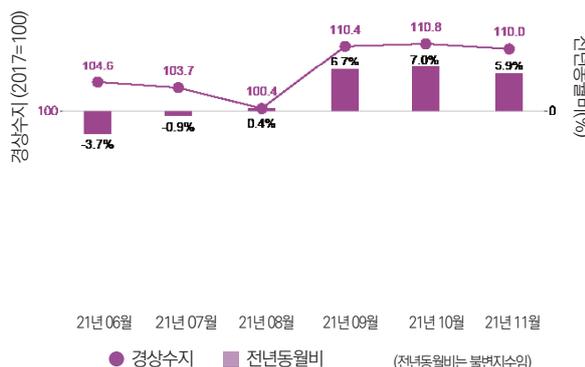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5.9% 상승,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20.7% 상승

- 서북권은 무점포소매(14.2%), 의복·섬유·신발(11.9%), 기타상품(11.5%), 기타가정용품(11.3%), 문화·오락·여가(7.7%), 음식료품(6.8%) 등 소매업 세부 업종 대부분이 상승세. 특히 전월 부진했던 기타가정용품과 문화·오락·여가가 상승으로 반등 되는 등 서북권 소매업 경기지수 오름폭도 (전월보다) 크게 확대(10월, 2.4% ⇨ 11월, 11.5%)
- 반면 전월 상승했던 가전제품·정보통신(10월, 2.0% ⇨ 11월, -5.4%)과 종합소매(10월, 0.0% ⇨ 11월, -4.7%)는 하락으로 전환
 - 11월 서북권 소매업은 무점포소매, 의복·섬유·신발, 기타상품, 기타가정용품, 문화·오락·여가, 음식료품 순으로 소비증가
 - 반면 연료, 가전제품·정보통신, 종합소매 순으로 소비부진
- 서북권은 전월 부진했던 주점·커피전문점(10월, -2.4% ⇨ 11월, 32.0%)과 음식점이 (10월, -5.5% ⇨ 11월, 16.3%) 상승으로 반등. 숙박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월 하락했던 서북권의 숙박·음식점업 경기지수도 상승으로 반등(10월, -4.4% ⇨ 11월, 20.7%)
 - 11월 서북권 숙박·음식점업은 숙박, 주점·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의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소비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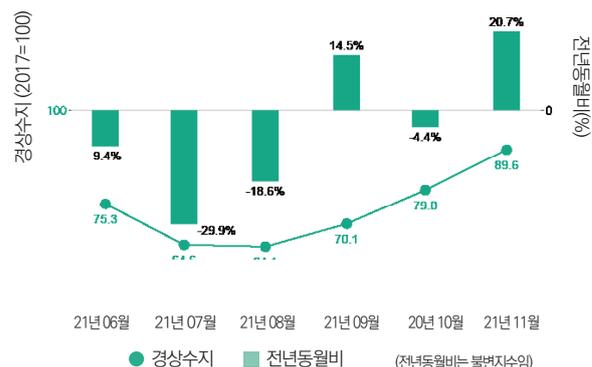
| 서북권 소비경기지수



| 서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 서북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통계표

년도	월	서울소비경기지수											
		서울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2021년	06월	103.8	99.1	113.9	110.0	104.7	100.0	94.9	89.8	103.7	98.6	91.0	86.8
	07월	99.3	94.2	105.3	101.0	98.9	93.6	94.7	89.2	101.3	95.8	85.5	81.4
	08월	95.5	89.9	100.2	95.0	94.8	89.0	91.1	85.2	97.0	91.1	83.5	78.9
	09월	103.0	96.9	112.2	106.0	99.4	93.5	100.0	93.1	104.4	97.9	91.7	86.3
	10월(p)	109.0	102.4	118.9	113.0	109.4	102.5	100.6	93.9	109.5	102.5	96.0	90.4
	11월(p)	113.5	106.2	125.6	119.2	116.7	109.0	101.9	94.7	112.3	104.6	100.5	93.8

p : 잠정치

기여도

[단위 : %p]

구분	서울소비경기지수 (21.11월)	소매업 (21.11월)	서울소비경기지수										숙박 및 음식점업 (21.11월)		
			종합소매	음식료품	가전제품·정보통신	의류·신발	기타 가정용품	문화·오락·여가	연료	기타상품	무점포소매	숙박	음식점	주점·커피전문	
서울	11.0	4.0	0.2	0.2	▽0.2	0.7	0.1	0.1	▽0.4	1.1	2.3	7.0	2.4	3.6	1.0
도심권	16.6	4.7	1.2	0.3	▽0.3	0.7	0.7	0.3	▽0.1	0.7	1.3	11.9	6.5	4.5	0.9
동남권	12.7	6.0	0.9	0.2	▽0.3	1.5	▽0.2	0.0	▽0.3	1.5	2.9	6.7	2.4	3.8	0.4
동북권	4.6	0.3	▽1.8	0.4	0.0	0.2	▽0.1	0.1	▽0.5	0.8	1.3	4.3	0.1	2.5	1.7
서남권	8.6	3.7	0.3	0.1	▽0.2	0.0	▽0.1	0.0	▽0.5	0.7	3.5	4.8	0.6	3.4	0.9
서북권	11.5	3.7	▽0.7	0.3	▽0.2	0.6	0.2	0.1	▽0.3	1.5	2.2	7.8	0.8	4.4	2.6

주 기여도는 하위구성요소의 변동이 종합지수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지역별 하위구성요소의 기여도 합은 지역별 종합지수의 전년동월 증감율과 동일합니다. 주의, 기여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므로 하위구성요소의 합이 종합지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종분류 및 지수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카드매출 빅데이터	
분류코드	분류명	가맹점 업종분류	
서울소비경기지수	G. 소매업	471 종합소매업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종합소매점 등
		472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정육점, 청과물, 농수산물, 농가공산품 등
		473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가전용품, 정보통신기기, 컴퓨터 등
		474 의복 및 섬유, 신발 소매업	남·여·기성복, 신발, 가방, 직물 등
		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가구, 인테리어, 악기 등
		476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운동 및 레저용품, 서적 및 문구, 완구 등
		477 연료 소매업	주유소, LPG가스, 가정용연료 등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약국, 화장품, 안경, 약세사리 등
		479 무점포 소매업	CATV상품판매, 전자상거래, 결제대행, 자동판매기, 방문판매 등
I. 숙박 및 음식점업	551 숙박시설운영업	호텔, 콘도, 모텔, 여관 등	
	561 음식점업	일반대중음식, 제과점, 패스트푸드 등	
	56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커피전문점, 주점 등	

주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카드 가맹점 업종사례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 개요

• 서울소비경기지수

시민생활에 밀접한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소비중심업종에 대하여 전체 또는 개별생산활동의 종합적인 파악을 위하여 업종별 부가가치를 가중치로 적용한 지수

• 데이터 : 신한카드 카드매출 빅데이터

• 공간적 범위 : 서울 및 5대 권역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종로, 중구,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마포

• 지수의 산식 : 라스피레스(기준시점 고정기중평균)산식

• 서울 및 각 권역의 가중치

산업 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며, 해당 지역 산업별 기초가격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 각 권역의 지수는 해당 지역의 산업 가중치 합이 1로 산정된 독립적인 지수로 각 권역 증감률의 합이 서울전체의 증감률과 일치하지 않음 $\sum w_i = 1$, w_i 는 산업별 가중치를 의미 (기초가격 부가가치는 2015년 경제총조사 기준 인건비 + 영업이익 + 감가·대손상각비 + 세금과공과임)

• 지수종류 : 경상지수 및 불변지수

- 경상지수 : 월별 매출액을 기준년도 매출액(2017년 평균)으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불변지수 : 경상지수 ÷ 디플레이터 × 100 (디플레이터는 업종별 생산자물가지수 활용)

• 기여도

종합지수증감률 = \sum 기여도 $_i$, 기여도 $_i = (\Delta$ 하위지수 $_i / \Delta$ 종합지수) × 종합지수증감률, i 는 각 산업을 의미
하위지수(산업 각 부문)가 종합지수의 증감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줌

유의사항

-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이하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소비중심 업종(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월간 소비지수이다.
- 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소비는 서울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약 30%로 소비경기의 핵심 요소이다.
- 서울소비경기지수의 장점은 매월 1억건의 신한카드 매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서울 세부지역의 소비경기까지 모니터링 할수 있다는 것이다.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통계청의 '서울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벤치마킹하여 생산 측면의 매출액을 중심으로 지수가 구성 되었으나, 분석대상인 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이 소비밀착업종임을 고려하여 지수의 명칭을 소비경기지수로 명명한다.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자료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통계청의 '서울 서비스업 생산지수'와는 지수의 공간 및 시간적 범위와 데이터 출처에 따른 표본이 서로 달라 두 지수의 방향 또는 증감율이 상이할 수 있다.
- 신한카드 매출 빅데이터는 개인 및 법인이 이용한 신용·체크카드 소비를 서울지역에 소재한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집계한 것으로, 서울시민의 카드소비 뿐 아니라 서울외 지역 국민들이 서울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카드소비를 포함한다. 단, 무점포소매업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민의 소비(지출)로만 집계 하였다.
- 신한카드 매출 빅데이터는 서울 소매업 및 숙박·음식업 전체 매출의 약 16%로 추정된다. 카드사의 점유율 및 카드사 용비율 변화에 따라 실제 매출액 대비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될 소지가 있으며, 카드 가맹점의 업종 변화 및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경상 및 불변지수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물가변동분을 제거한 불변지수의 전년동월비를 중심으로 작성 및 분석되며, 설명절, 연휴 등의 월간 이동과 영업일수 변동, 그 외 불규칙 요인에 의한 효과가 분석결과에 포함되므로 해석 및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카드매출 빅데이터의 가공·조정·변환을 통해 산출된 지수로 신한카드 원본 데이터의 트렌드와는 차이가 있다.